



PP, 신규 프로젝트 취소
 아시아 공급과잉 30%, 동남아 가동률 80%로 부진

아시아 PP 시장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후 고민중이다. DeWitt에 따르면 아시아의 PP 생산능력은 1999년 30% 증가하고 2002년 20% 추가증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는 PP 가동률이 아시아 경제위기 와중에도 90~100%를 유지했고 2002년까지 90%를 약간 밑돌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는 2002년까지 60%를 약간 상회하고 2002년에는 70%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4~95년에는 피크를 기록해 동북아 가동률이 100%를 넘었으나 동남아는 80%를 상회하는데 머물렀다. 10~15년동안 동남아와 동북

아의 PP가동률이 30%p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남아 및 서아시아의 PP 신증설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PP 생산능력을 20만~30만톤 증설했고, 2003년까지 크래커 디보틀넥킹과 관련된 증설 작업이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

수지코팅 종이용기 상품화
 일본 대동상공

다이셀 화학공업 그룹의 대동상공은 수지를 코팅한 종이용기 '파라볼라시리즈'를 상품화, 식품 메이커에 납품을 개시했다.

종이를 기초로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수지를 코팅, 200도의 고온에서 건될 수



있어 오븐용으로 쓰이는 이외에 내유성, 인쇄특성이 우수하다. 최근 2개사제 수주가 들어올 전망이어서 연간 5억엔의 매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회사는 제지의 완충재로 시작한 메이커로 현재는 합성수지 진공성형 가공이 주업무, 그룹기업의 PBT수지를 신소재로 채용함으로써 오븐대응의 고기능 용기를 개발했다. 보향성, 내유성, 히트셸성이 우수한 외에 소재의 연소 칼로리가 종이와 거의 같아서 폐기처분시에는 종이와 같은 취급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 업무용 식품가공분야의 수요가 기대된다.

PET필름 수출차질 불가피
중국, 덤핑방지관세 72% 부과 판정 SKC 21% 부과

중국이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최고 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함에 따라 PET 필름 수출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수입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는 중국 역사상 처음이며, 전 생산품목으로는 두번째이다.

중국의 PET필름생산기업 6개사는 1999년 4월 SKC를 비롯한 한국산 PET필름 수입제품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는데 중국 정부가 관례를 깨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PET필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덤핑방지관세 외에도 수입관세 36%에 부가가치세 17%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한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2월 초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기업들은 한국산에 대한 덤핑판정으로 직접적인 한국산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홍콩을 통한 간접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산 PET필름 수입량은 1998년 1~9월 9천1백27톤으로 1997년에 비해 328% 증가했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수입도 7518톤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ET필름의 중국 수출량은 1997년 2773톤에서 1998년 1만1352톤으로 340% 급증한데 이어 1999년 1~11월에도 1만1천6백95톤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PET 필름 반덤핑제소는 PE, PP, PVC 등 폴리머를 비롯한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등 합성원료에 대한 반덤핑제소의 전단계로 인식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중국산 소다회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염화비닐수지 2년째 출하 감소
일본, 염화비닐공업환경협회

일본의 염화비닐공업환경협회가 발표한 99년의 염화비닐수지 생산량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2백46만6천톤, 총출하량은 동 0.5% 감소한 2백5만 9천3백18톤으로 생산, 출하 모두 2년 연속 감소했다.

국내 출하량은 경질용과 연질용이 약간 증가했지만 전선·기타용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국내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출량은 총 3.2% 감소한 72만 6천9백53톤으로 감소했다. [ko]